성찰과 비판의 책 읽기

손유경

《지식의 발견》 고명섭 지음 | 그린비 | 374쪽 | 값 14,900원

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부쩍 라디오를 많이 듣게 됐다. 이른 아침의 시사 프로그램이나 해질 녘의 퇴근길 프로그램이 나의 주요 공략 대상이지만 때때로 차창 가득 내리는 햇빛을 맞으며 대낮에 운전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도 나는 라디오를 켠다. 지금이야 어쨌거나 어릴 적 나는 어느 면으로 보나 '라디오 키드'는 아니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틀어 달라며 가슴 아픈 짝사랑의 사연을 담아 여기저기 라디오 방송국에 엽서를 보낼 때도 나는 그 흔한 엽서 한 장 써 보지 못했다.

내가 라디오를 싫어했던 이유는 하나. 너무 말이 많아서였다. 그 시절 나는 진행자 없이 음악만 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라디오를 틀어 놓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는가 하면 또 그런 건 아니다. 학창 시절 내용돈으로 음반을 산 기억도 별로 없다. 음악'만'을 탐하지도 않는 주제에 '말이 많다'는 이유로 라디오를 멀리한 까닭은 대체 뭘까? 오랜만에 만난 한 동창의 입에서 그 답이 나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넌 외운 거 까먹는다고 라디오 듣는 거 싫어했잖아.

고작 그거였나? 그랬다. 그래서(?), '넌 왜 공부를 하느냐'는 질문은 나를 참 난처하게 만든다. 혹시 지금까지도 나는 공부 좀 하겠다고 정작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앉아 있는 건 아닐까. 줄곧 덩치를 키워 온 이런 불안감은 소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내 자의식을 시도 때도 없이 툭툭 건드린다.

엽서를 쓰거나 읽는 기분으로 나는 때때로 '서평'을 쓰거나 읽는다, 고 한 번 말해 본다.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 즐겁다고도 생각해 본다. 고명섭의 서평 모음집 《지식의 발견》을 내가 띄운 엽서들에 대한 답장이라 멋대로 상상하면서 나는 더 흐뭇해진다. 남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내 것을 까먹을지도 모른다고 여기는 아둔함이여 안녕.

밖으로 표현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민첩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일에 있어 자기 검열 많고 에둘러 말하기 좋아하는 나 같은 인간에게 서평이라는 글쓰기는 참으로 은혜로운(!) 장르다. '나'라는 내용물을 '그/녀의 책'으로 포장할 수 있다니. 게다가 서평에 대한 서평이라면 이중 삼중의 포장

●이 글을 쓴 손유경은

문화기획집단 〈퍼슨웹〉의 기획위원으로 있으며 《대담한 책읽기》《인텔리겐차》의 공저자이다.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외국어대 강사로 있다.

이 가능한 마당에 그 안에 뭔들 집어넣지 못하랴 하는 용기마저 생긴다.

《지식의 발견》은 오랫동안 문화부 출판담당 기자로 활동한 고명섭이 월간 〈인물과 사상〉에 연재한 서평들을 민족주의, 근대성/계몽, 그리고 한국사회의 지식인상 등 한국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여기서 저자는 한국이라는 제3세계 지식인만이 가질 수 있는 절망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중석의 《배반당한 민족주의》에서부터 강준만의 《한국 현대사의 길잡이 리영희》에 이르는 스무 편의 책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의 시선이, 기실은 서양의 개념과 이론을 수입해 쓰는 한국의 지식인이 오리엔탈리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주체적인 이론을 생산하고 그것을 실천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저자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저자가 이 책 부제의 표현대로 '한국 지식인들의 문제적 담론'을 읽는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비판적이면서 또한 성찰적일 수 있었을 터이다.

무엇보다도 서양에서 들여온 용어, 예컨대 내셔널리즘이나 파시즘, 마키아벨리즘, 혹은 똘레랑스 등의 용어가 어떻게 왜곡, 오용, 또는 남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저자의 문제 제기가, 이미 중반을 넘긴 2005년도에 새삼 참신하게 들리지는 않을지언정 그 의문들의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고는 누구도 말하기 힘들다. 새롭지 않다고 해서 이미 해결된 것은 아니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령 저자가 "민족주의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니다.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민족주의는 선하고,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민족주의는 악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솔직히 나는 누가 민중이고 누구는 아닌가 반문하고 싶기도 했다. 또는 "탈식민주의의 피장파장 논리나 식민지 근대화론의 적반하장 논리는 지금도 우리 사회를 횡행하고 있다"는 표현 속에서 탈식민주의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품어 보았다. 한데 '한쪽으로 심하게 굽어진 막대기를 바로 잡으려면 그만큼 심하게 반대쪽으로 굽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서양 속담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선한 민족주의와 악한 민족주의'라는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이분법적 수사나, '피장파장의 논리'와 같은 다소 단순화된 표현을 굳이 구사한 저자의 심중을 이런 서양속담에 비추어 미루어 짐작하는 일이 억측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길 희망한다.

제3세계에서 '학문'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어떻게 하면 '하얀 가면'을 덮어 쓰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천형처럼 우리를 괴롭힐지 모른다. 하지만 그 고통이 너와 나를, 당신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한에서는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또한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김상봉의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를 다루면서 저자는 "고통이 너와 나를 만나게 하는 한에서 기쁨은 온다"는 소제목 아래 그리스 비극에 대한 김상봉의 분석을 통찰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며 나는 《지식의 발견》을 내게 도착한 답장이라 여겼던 내 꿈이 헛된 소망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만나 기쁨이 되는 이런 순간을 좀더 오래도록 음미하고 싶어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다. 나는 '저널리즘적 글쓰기'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을 가지고 이 책의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것이 동감과 존경에 자리를 내주는 것을 보면서 책을 닫았다. 리영희와 강준만이라는 인물을 통해 '지식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묻고 있는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강준만식 글쓰기의 공과를 지적하면서 "개념을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는 것은 지식인의 허영이나 과시와는 다른 문제"라고 못박고 있다. "치열하고도 투철한 비판정신"은 "개념의 엄밀성"과 결합되어야만 한층 강한 "지적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저자의 메시지는, 정보와 뉴스와 오락과 광고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버텨온 한 신문기자가 그리고 있는 지식인상이 얼마나 정제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엉킨 사유에 빗질을 해주고 탄력 잃은 감정에 숨을 불어넣어 주는 타인의 목소리들을 위해, 남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내 것을 까먹을지도 모른다고 여겼던 시절의 어리석음이여 다시 한 번 영원히 안녕.